

# 이그나티우스의 성찬신학에 대한 연구

## : 영지주의자들과의 교리적 갈등을 중심으로

조윤희

(그리십교회 담임목사, 조직신학)

### 〈한글초록〉

2세기 영지주의자들은 가현설과 그노시스(영지)의 교리로 교회를 심각한 갈등에 빠트린다. 여기에 대해 이그나티우스는 일곱 편의 서신을 기록한다. 순교를 앞두고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던 이그나티우스가 기록한 「에베소인들에게」에서부터 「폴리갑에게」 이르는 그의 서신은 하나의 유언과도 같았다. 이런 측면에서 그의 서신들은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펼쳐나가는 장면이기도 했다.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의 서신을 통해 성찬 교리로 영지주의자들의 교리에 맞선다. 이그나티우스가 성찬 교리를 제시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는 로마로 압송당하는 짧은 시간에 영지주의자들의 교리를 가장 극명하게 반증할 수 있었던 것이 성찬 교리였다. 두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교리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성찬 교리였다. 세 번째로 영지주의자들의 교리가 거짓된 것임을 가장 확실하게 반증할 수 있는 것이 성찬 교리였다.

사도들의 대면자로 불리는 이그나티우스의 성찬 신학은 교리적으로 갈등에 빠진 교회를 향해 세 가지의 교리적 제시를 하게 된다. 1)기독론과

투고일: 2021.3.6.

수정투고일: 2021.4.22.

게재확정일: 2021.5.1.

관련하여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두 본성’인 ‘신성’과 ‘인성’의 교리에 서도록 한다. 2)구원의 교리와 관련하여 교회로 하여금 십자가의 대속의 교리를 분명히 하도록 한다. 3)부활과 관련하여 교회로 하여금 흔들림 없는 교리에 서도록 한다. 이그나티우스는 교회로 하여금 성찬론을 통해 교리와 신앙의 두 기둥을 세우도록 한다. 그리고 그는 교리적 갈등으로 인하여 분열에 빠지지 않도록 ‘참된 일치’와 ‘연합’에 이르도록 교회를 지도하고 있다. 이런 이그나티우스의 성찬 신학은 우리에게 신앙과 신학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실제 안에서 찾도록 그 길을 조명해주고 있다.투고일:

**주제어** : 그리스도, 이그나티우스, 성찬, 영지주의, 가현설, 갈등

## I. 들어가는 말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Ignatius of Antioch, 35-108)는 초대 교회의 교부였다. 그는 에비온주의(Ebionism) 및 가현설(Docetism)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Gnostics)와 교리적 갈등을 논한 최초의 속사도 교부였다. 특히 이그나티우스는 영지주의자들과 불거진 교리적 갈등을 성찬론을 통해 그 해결점을 찾아갔던 최초의 신학자이기도 했다. 가현설을 앞세운 영지주의 이단을 향한 성찬론의 제시는 교리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 방향과 길을 제시해주게 된다. 「서머나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7장 1절에 따르면 이그나티우스의 성찬론은 크게 세 가지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과 ‘참된 인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참된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참된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다.<sup>1</sup> 이와 같이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

신 것을 가현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교리를 성찬론을 통해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과 함께 ‘참된 인성’으로 반증한다.

초대 기독교와 함께하였던 영지주의(Gnosticism)는 유대교 전통에 더해진 헬레니즘과 플라톤 사상이 혼합을 이루면서 그 시작을 이룬다.<sup>2</sup> 이레나이우스(Irenaeus, 130-202)의 「이단 반박서」에 따르면 영지주의의 시작은 사도행전 8장 9-25절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Simon Magus)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마르키온 이단이 등장하게 된다.<sup>3</sup> 순교자 유스티누스(Iustinus, 100-165)는 자신의 「제1변증서」에서 이레나이우스 보다 먼저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다소의 사람들에 의해 신으로 고백되었고, 숭배되기까지 했다.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 제시되었으며, 뱀을 위대한 상징과 신비로 묘사하기까지 했다.<sup>4</sup>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6장 5절에 등장하는 일곱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니콜라를 영지주의를 일으킨 우두머리로 보기도 한다.<sup>5</sup> 이런 가운데 영지주의는 중기 플라톤 철학과 함께 혼합된 영지사상이 발렌티누스(Valentinus, 100-160/180)에 의해 발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영지주의의 출발은

<sup>1</sup> Ignatius, “To the Smyrnae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7:1, 114. 이하에서는 Ignatius의 일곱 서신에 대해 in *Early Christian Fathers*를 생략하고 서신만 표기할 것이다.

<sup>2</sup>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4 Vol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4), 1:122; 정일권,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넘어서: 기독교와 불교 대화신학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개혁신학』 37 (2013): 1.

<sup>3</sup> Irenaeus, “The Refutation and Overthrow of the Knowledge Falsely So Called,”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1 :27.1-4, 367-368.

<sup>4</sup> Justin Martyr, “The First Apology of Justin, the Martyr,”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26-29, 258-260; Bavinck, *Reformed Dogmatics*, 3:31.

<sup>5</sup> Madeleine Scopello, *Les Gnostiques*, 이수민 편역, 『영지주의자들』(왜관: 분도출판사, 2005), 33-34.

어느 한 사람에 의해 구성되었다고 말하기보다 여러 분파적인 요소를 담아 교회 내에서 하나의 분파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영지주의는 다양한 영지적 관점으로 구원에 관한 교리적 갈등을 유발시킨다.

사도 이후 속사도들이 이끌어가던 2세기의 교회는 교리를 체계적으로 세우지 못한 상태였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교회를 자신들의 교리로 점령하기 시작하며 교회 내에 심각한 교리적, 영적 갈등을 유발시킨다. 이들은 오직 ‘영적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구원’을 추구하고 있었다. 교회가 로마정부와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던 2세기였다. 핍박과 고난, 그리고 교리적으로 아직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한 때였다. 영지주의자들은 교회의 신자들을 거짓된 교리로 사로잡는다.<sup>6</sup>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그나티우스는 순교를 당하기 위해 로마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순교 현장을 향해 나아가면서 서신을 통해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해나갔다.

이그나티우스의 성찬신학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sup>7</sup> 그는 성찬론을 통해 사도들의 신학을 대변하면서 거짓된 교리에 반증한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자신의 성찬신학에 올려놓고 영지주의자들로 인해 교리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를 향해 세 가지의 처방을 내린다. ‘구원의 효력’과 ‘부활의 참된 진리’ 그리고 ‘참된 일치와 연합’이다. 이그나티우스의 성찬론을 분석하는 것은

<sup>6</sup> Ernst Dassmann, *kirchengeschichte I*, 하성수 역, 『교회사 I』(예관: 분도출판사, 2007), 46; Jaroslav Pelikan, *The Emergence of the Catholic Tradition(100-60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71), 13-14; William C. Placher, *A History of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3), 45; Louis Berkhof,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s* (London: Banner of Truth, 1991), 30-32; Karl Suso Frank, *Lehrbuch der Geschichte der Alten Kirche*, 하성수 역, 『고대 교회사 개론』(서울: 가톨릭출판사, 2008), 329-330.

<sup>7</sup> Eusebius Pamphilus, *The Ecclesiastical History of Eusebius Pamphilus*, trans. C. F. Cruse 3:36 (Oregon: Watchmaker Publishing, 2011), 109-111; J. N. D.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68), 189-193; Henri de Lubac, *La mystique et l'anthropologie dans le christianisme*, 박진상 역 『그리스도교 신비사상과 인간』(화성사: 수원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6), 116.

성찬론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성찬에 대한 이해를 함께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가 된다. 특히 이그나티우스의 성찬론은 영지주의자들과 갈등의 문제 앞에 세 가지 교훈을 제시한다. ‘예언의 성취’와 ‘영생에 대한 확신’, ‘참된 제자관’이었다. 이것은 당시 교리적 형틀이 없었던 초대 교회의 신앙적 가치관을 제시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그나티우스의 성찬론에 대한 연구는 영지주의자들과 교리적 갈등에 대한 답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갈등 앞에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세워나가야 하는지 매우 유익한 답을 준다.

## II. 이그나티우스의 성찬 신학과 영지주의자들과의 네 가지 갈등

### 1. 성찬에 담겨진 언약론과 관련한 갈등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회복과 관련해 ‘은혜언약’을 다루고 있다.<sup>8</sup>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담과 관련된 두 가지 점이 선결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대리자가 아니라 아담 자신이 직접 죄에 대한 값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머리로써 대표성에 따른 아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sup>9</sup> 여기에 대해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가 동정녀를 통해 성육신한 것과 하나님의 구원계획 안에서 ‘다윗의 씨’로 잉태된 사실을 「에베소 인들에게」 제18장 2절과 제19장 1절에서

<sup>8</sup> Johannes G. Vos & G. I. Williamson,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A Commentary* (New Jersey: P&R Publishing, 2002), 74-75, 78-79, 542.

<sup>9</sup> 우병훈, “유신진화론의 아담론 비판: 데니스 알렉산더의 견해를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92 (2019): 158-159.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시킨다. 첫 번째는 ‘참 아담’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동정녀를 통한 성육신은 그리스도가 아담의 ‘육’과 ‘혈’을 가진 상태에서 태어난 ‘참 아담’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 의해 잉태되었으며, 하나님의 구원계획 안에서 다윗의 씨로부터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수난으로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태어나셨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리아가 동정녀였던 것과 그녀가 아기를 낳은 것이 그랬듯이 주님의 죽음은 이제 이 세상의 군주의 시야를 피했습니다. ...(*Eph.* 18:2-19:1)<sup>10</sup>

두 번째는 인류의 머리로서 주어진 대표성을 충족시킨다. 첫째 아담에게 부여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은 대표성과 머리의 성격을 대변한다.<sup>11</sup>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단순한 명칭이 아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명시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머리로서, 대표성으로서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대속의 제물임과 동시에 아담의 당사자였으며, 대표성을 지닌다.<sup>12</sup> 창세기 3장 15절의 ‘은혜언약’은 그 성취가 동정녀의 몸을 통해 잉태한 ‘씨’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사야 7장 14절은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임마누엘’이라 계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씨’가 ‘다윗의 계보’를 통해 이뤄질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삼하 7:12 참조).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증거한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sup>10</sup> Ignatius, “To the Ephesians,” 18:2-19:1, 92-93.

<sup>11</sup> 조윤호, “아담의 세 가지 직분과 창조론과의 관계,” 『갱신과 부흥』 24 (2019): 223-228.

<sup>12</sup> 조윤호,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다 이루었다’가 의미하는 것,” 『갱신과 부흥』 20 (2017): 210-213.

아니하였느냐 하며”(요 7:42).

이그나티우스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가 기록했던 서신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는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적 관점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예비온주의와 영지주의로 인한 교리적 갈등은 속사도 교부들로 하여금 사도적 증거를 통해 좌우진영에 따른 갈등의 답을 교회를 향해 제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sup>13</sup> 이런 측면에서 이그나티우스의 성찬론은 단순한 교리적 제시가 아니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과의 교리적 갈등에 대한 사도적 입장을 대변하는 변증에 따른 답이었다. 초기 유대교 연구자인 헤르만 리히텐베르거(Hermann Lichtenberger, 1943-현재)에 따르면 사도들은 성찬을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하나는 성찬을 하나님의 통치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하여 언약적 관점으로 성찬을 바라보았다.<sup>14</sup>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예수의 피를 성만찬에서 ‘대속’과 ‘언약의 피’로 증거하고 있다. 사도들의 영향 가운데 있었던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의 피를 언약과 관련하여 성찬으로 연결한다.

「에베소 인들에게」 제18장 2절과 제19장 1절에서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였다는 것과 마리아가 ‘동정녀’였다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따른 ‘은혜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에 따른 언약론을 제시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1648) 제35문에 따르면 ‘은혜언약’이 신약에서 시행된 것은 “말씀의 설교와 세례, 그리고 성찬의 시행으로 시행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와 함께 계속된다.<sup>15</sup> 그리

<sup>13</sup> Bavinck, *Reformed Dogmatics* 3:253-254; L. W. Barnard, “The Background of St. Ignatius of Antioch,” *Vigiliae Christianae* 17 (1963): 193-194.

<sup>14</sup> Hermann Lichtenberger, *Fruhjudentum und Kirche im Neuen Testament*, 박성호 역, 『초기 유대교와 신약의 교회』(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100-117.

<sup>15</sup> Vos & Williamson,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82.

나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언약론’을 배격하고 있다. 이그나티우스는 ‘언약’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거부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교리에 일침을 가한다. 「서머나 인들에게」 보낸 서신은 교회의 분열과 교리적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는 영지주의자들과 관련하여 더욱 특별하다. 「서머나 인들에게」 제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믿지 못하는 영지주의자들을 가리켜 ‘심판’이라는 강한 어조를 사용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도 한다. “... 만약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못한다면 이들 또한 심판입니다. ...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sup>16</sup>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에 따른 언약의 성취를 이루고 있다.

영지주의자들과 관련된 교리적 갈등에 대한 접근을 이그나티우스는 성찬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서머나 인들에게」 제7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과 ‘참된 죽음’, ‘참된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을 가리켜 “성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라고 칭하고 있다.<sup>17</sup> 그는 영지주의자들을 ‘언약과 떨어진 자’, ‘언약과 관련 없는 자’로 여기고 있었다. 영지주의자들의 문헌집인 나그 함마디(Nag Hammadi library)에 따르면 세계는 힘의 세력에 의해 각각의 자손이 세워진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시작하여 보이는 세계가 지어진다.<sup>18</sup>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교리는 언약을 논하지 않는다. 그들의 교리는 구원을 영의 회복과 탈출 과정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이 거부되었던 영지주의자들과의 논쟁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언약

<sup>16</sup> Ignatius, “To the Smyrnaeans,” 6:1-2, 114.

<sup>17</sup> Ignatius, “To the Smyrnaeans,” 7:1, 114;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8), 720.

<sup>18</sup> Bentley Layton, trans. “The Hypostasis of the Archons The Reality of the Rulers,” in *The Nag Hammadi Library*, ed. James M. Robinson (California: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2009), II.4, 114.



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성찬과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다. 그는 성찬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두 가지를 설명한다. 「에베소 인들에게」 제1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같은 서신 제20장 2절과 「트랄레스 인들에게」 제9장 1절에서는 ‘다윗의 혈통’의 표현을 빌려 그리스도의 ‘인성’과 함께 언약의 성취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거부하며, 언약적 관점을 밀어내는 교리로 교회를 갈등의 위기 가운데 몰아가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해 이그나티우스는 ‘다윗의 씨’와 ‘다윗의 혈통’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리스도의 언약’을 비취낸다. 그리고 이것을 성찬으로 이어간다. 이그나티우스의 「에베소 인들에게」 제18장 2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부터’ 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속을 이룰 제물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완전함을 담아낸 ‘참된 인성’임과 동시에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는 이런 것들을 「에베소 인들에게」 제13장 1절과 「서머나 인들에게」 제7장 1절의 성찬과 연결하여 영지주의자들의 교리의 모순을 지적한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 의해 잉태되었으며, 하나님의 구원계획 안에서 다윗의 씨로부터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나셨습니다.(*Eph.* 18:2)<sup>19</sup>

더 자주 모여서 하나님의 성찬을 거행하고 찬양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주 만날 때 사탄의 권력은 전복되고 그의 파괴성은 여러분의 만장일치된 믿음에 의해 심판되기 때문입니다.(*Eph.* 13:1)<sup>20</sup>

<sup>19</sup> Ignatius, “To the Ephesians,” 18:2, 92-93.

<sup>20</sup> Ignatius, “To the Ephesians,” 13:1, 91.

그들은 성찬식이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고,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찬식과 기도의 예식을 멀리합니다.(*Smy.* 7:1)<sup>21</sup>

## 2. 성찬이 의미하는 십자가론과 관련한 갈등

이그나티우스는 「서머나 인들에게」 제1장 1절에서 신자를 가리켜 “영과 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현설로 폄하 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을 겨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된 ‘영’과 ‘몸’을 제시한다.<sup>22</sup> 여기서 우리는 이그나티우스가 무엇 때문에 ‘영’과 ‘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하고 있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서머나 인들에게」 제2장과 제3장에 잘 나타나 있다. 영지주의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해 가현설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지주의자들은 구세주를 신성과 인성으로 ‘한 인격’을 이룬 그리스도에게서 찾지 않는다. 이들은 구세주를 ‘영’의 그리스도에게서 찾고 있었다. 구세주의 역할은 영혼을 안식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그들의 교리였다.

나그 함마디에 기록된 「진리의 복음」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몸이 아니었다. 가현적인 것이며, 성부에 대한 지식의 열매였다.<sup>23</sup> 영지주의자들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가현적인 것으로 하나의 위장술이었다. 흔적을 남기고

<sup>21</sup> Ignatius, “To the Smyrnaeans,” 7:1, 114.

<sup>22</sup> J. van Gendoen & W. H. Velema, *Beknopte gereformeerde dogmatiek*, 신지철 역 『개혁교회 교의학』(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743-746.

<sup>23</sup> Robert M. Grant, trans. “The Gospel of Truth,” in *The Nag Hammadi Library*, 1:3, 24.

죽은 것처럼 보이도록 위장한 이유는 신의 악한 창조를 도운 아르콘들(Archons)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다.<sup>24</sup> 아르콘의 사명은 영혼을 육체의 감옥에 가두는 일이었다.<sup>25</sup>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진짜로 죽었다고 여기는 자들을 영지주의자들은 비웃었던 것이다. 이런 가현설을 반박하기 위한 교리적 제시가 이그나티우스로부터 주어진다. 그는 그리스도가 ‘영’과 ‘육’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었으며, 여기에 덧붙여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강조한다.<sup>26</sup>

그분(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고난을 겪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였으며,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진정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 그분의 수난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가짜는 그들(영지주의자들)입니다! ... 부활하신 후에도 그분이 육신으로 계신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들(제자들)은 그분의 몸을 만졌고 그분의 호흡을 느끼면서 확신했습니다. ... 더욱이 부활 후에 그분은 영적으로는 아버지와 연합되었지만 실제 인간으로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Smy. 2:1-3:2*)<sup>27</sup>

우리의 ‘영’과 ‘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형성에 대한 ‘영혼’과 ‘육체’에 대한 이분설의 입장과 함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죄에 대한 대속이란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였다. 바울과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랐던 이그나티우스는 사도적 가르침을 떠나지 않는다.<sup>28</sup> 그는 바울과 베드로의 가르침

<sup>24</sup> Scopello, *Les Gnostiques*, 105.

<sup>25</sup> William R. Schoedel, trans. “The (First) Apocalypse of James,” in *The Nag Hammadi Library*, V:3, 153-156.

<sup>26</sup> 조윤희,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둘째 아담 그리고 창조회복』 (서울: (사)기독교문서선교회, 2021), 76-76.

<sup>27</sup> Ignatius, “To the Smyrnaeans,” 2:1-3:2, 113.

<sup>28</sup> Adalbert Hamman, *How to Read the Church Fathers* (London: SCM Press LTD, 1993),

을 따라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 세 가지 중요한 교리를 제시한다. 1)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을 아담의 대속에 따른 대표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1-22). 2)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3) 구원에 대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벧전 1:9).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던 이그나티우스의 신학은 영지주의자들을 반박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제시되는 십자가의 교리를 성찬론과 연결한다. 「트랄레스 인들에게」 제11장 2절에서는 십자가를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십자가는 연결의 역할을 한다. 십자가는 죽지 않는 열매를 맺게 하는 가지며, 그리스도께서 신자를 부르는 도구가 된다.<sup>29</sup> 십자가 신학을 대변하고 있는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십자가를 가리켜 교회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판결문’이라고 했다.<sup>30</sup> 「트랄레스 인들에게」 제6장 1절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영지주의 이단과 구별 짓는 그리스도인의 양식을 제공하는 구별점이었다. 이런 이그나티우스의 십자가 신학은 그의 성찬신학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서머나 인들에게」 제7장 1절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을 논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하여 가현설의 거짓됨을 증거하고 있다. 그는 「로마인들에게」

9, 61.

<sup>29</sup> Ignatius, “To the Trallians,” 11:2, 100-101.

<sup>30</sup> 우병훈, “참된 교회의 감춰져 있음—루터 교회론의 한 측면,” 『한국개혁신학』 55 (2017): 101-102.

제7장 3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빵’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음료’로 표현하고 있다.<sup>31</sup>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룬 대속을 성찬에서 ‘빵’과 ‘음료’를 통해 십자가의 결실이 가져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과 구원에 따른 영생을 증거한다. 로마 가톨릭의 교회사 학자인 한스 쿡(Hans Küng, 1928-2021)에 따르면 이그나티우스는 성찬에 대해 ‘유카리스티아(εὐχαριστία, 성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였다.<sup>32</sup>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인들에게」 제13장 1절과 제21장 1절,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제4장 1절, 제6장 3절, 제11장 1절, 그리고 「서머나 인들에게」 제6장 2절, 제8장 1절, 제10장 1절에서 성찬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실제적 행위를 담고 있음을 ‘유카리스티아’를 통해 증거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십자가의 가현설로 교리적 갈등을 조장하고, 성찬을 거부하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의 교리가 거짓되다는 것을 밝힌다.

### 3. 성찬에서 증거되고 있는 그리스도론과 관련한 갈등

인간 구원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 신성이 인성을 취한다. 성자는 아담의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 값을 치루기 위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값이 있었고 죄의 값인 사망이 있었다. 이것이 이그나티우스의 그리스도론에서 증거되고 있다.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인들에게」 보내는 서신과 「트랄레스 인들에게」,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서머나 인들에게」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리스도는 영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sup>31</sup> Ignatius, “To the Romans,” 7:3, 105.

<sup>32</sup> Hans Küng, *Die Kirche*, 정지런 역, 『교회』(서울: 한들출판사, 2007), 309.

그리스도'와 함께 '성육신한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대속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다.<sup>33</sup>

이그나티우스의 신학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조명하며, 변증하고 있다.<sup>34</sup> 이런 그리스도론을 그는 성찬과 연결시키고 있다. 「로마인들에게」에 의하면 성찬은 하나님의 진노의 값과 죽음의 값을 완전하게 성취한 '몸'이 '하나님의 빵'으로, 그리고 '피'가 '음료'로 주어지는 장소다.<sup>35</sup> 이것이 영생에 따른 '불멸의 약'으로 성찬 가운데 주어진다 것을 「에베소인들에게」 제20장 2절은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의 그리스도론은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은 것을 가현에 따른 위장술로 그 모습을 제시한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아르콘의 세력들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임시 방편적인 측면에서 취한 조치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sup>36</sup>

이그나티우스의 성찬론이 그리스도론과 연결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의 가현적 제시에 대해 그리스도의 실재론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언약의 실재를 성찬을 통해 제시하는 변증이었다. 이그나티우스는 이단과의 교리적 갈등에 따른 문제를 그리스도론을 중심으로 한, 성찬론을 제시하며 신학적 논쟁을 이끌어갔던 최초의 교부였다. 그는 「빌라델피아인들에게」 제8장 2절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마음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고 밝힌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십자가와 죽음, 부활은 이그나티우스의 신앙과 신학의 바탕이 되었으며, 성찬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였다.

<sup>33</sup> Ignatius, "To the Ephesians," 7:1-2; 20:2. 89-90, 93; "To the Trallians," 2:1; 9:2, 98-100; "To the Philadelphians," 8:2; 9:2, 110-111; "To the Smyrnaeans," 1:1-3:2; 5:1, 113-114.

<sup>34</sup> 조윤호, "갈등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이그나티우스의 신학과 사상연구: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68 (2020): 225-226.

<sup>35</sup> Ignatius, "To the Romans," 7:3, 105.

<sup>36</sup> Scopello, *Les Gnostiques*, 104.

나는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파벌 지어 일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행동하십시오. ... 나의 마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울 수 없는 흔적들은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에 의해 생겨난 신앙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러한 일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Phil.* 8:2)<sup>37</sup>

영지주의자들의 교리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악한 세상에 갇혀 있는 인간을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 ‘알려지지 않은 신’으로부터 보내진 사자였다. 나그 함마디에 수록된 「빌립의 복음」은 예수님 자체를 성찬으로 여기며,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오신 분으로 증거하고 있다.<sup>38</sup> 그리고 「발렌티안의 설명」은 그리스도가 죽을 때마다 순결한 음식과 음료를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논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실체를 논하는 성찬과 십자가에 따른 구원론이 아니었다. 지식에 따른 구원론이었으며,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sup>39</sup> 이그나티우스는 이런 영지주의의 가현적 실체론을 ‘몸’과 ‘피’를 통한 실제의 실체론을 성찬으로 증거해내었다. 그리고 이것을 ‘인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성육신한 그리스도’,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대속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성찬론과 연결하여 변증했던 것이다.

#### 4. 성찬에 나타나는 선택교리와 관련한 갈등

이그나티우스의 성찬론은 영지주의자들을 적절 대항하고 있다. 이런

<sup>37</sup>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8:2, 110.

<sup>38</sup> Wesley W. Isenberg, trans. “The Gospel of Philip,” in *The Nag Hammadi Library*, II:3, 102.

<sup>39</sup> James M. Robinson, trans. “A Valentinian Exposition,” in *The Nag Hammadi Library*, XI:2ab; ab, 251-252.

측면에서 제시된 성찬의 교리적 형태는 변증적인 이그나티우스의 신학적 유형을 담고 있다. 그리고 성찬은 교회와 관련한 구원론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구원론에 대해 영지주의자들은 기존 교회의 구원론과 동일한 ‘선택된 자’의 구원론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선택론’은 선택에 의해 영지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는 영지주의자로 태어난다는 것이 이들의 교리였다. 앞에서 이미 밝혔던 것처럼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신 대속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sup>40</sup> 아담의 ‘원죄론’을 거부한다. 영지주의자들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창조세계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악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는 교리를 거부한다. 나그 함마디에 수록된 「세상의 기원」에 따르면 창조는 어둠에 따른 혼돈이었다.

세상과 인류의 신들이 혼돈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혼돈의 근원 또는 그 뿌리의 정통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착각입니다. ... 그러나 그것의 외관은 어둠으로서 ‘흑암’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것으로부터 흑암을 지배하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세력은 어둠을 ‘무한한 혼돈’이라고 불렀습니다.(CODEX. XIII)<sup>41</sup>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에 대해 선택적 교리를 펼치고 있다. 선택된 자는 영으로 이미 결정되어졌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영들을 일깨우는 측면에서의 복음이었다. 선택된 자는 오직 영지주의자 자신들뿐이었다. 그리고 이런 영지주의를 찾는 작업이 말씀에 따른 구원의 복음선포였

<sup>40</sup> Andreas J. Köstenberger, *A Theology of John's Gospel and Letters*, 전광규 역, 『요한신학』(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375.

<sup>41</sup> Hans-Gebhard Bethge & Bentley Layton, trans. “On the Origin of the World-The Untitled Text,” in *The Nag Hammadi Library*, XIII:2, 284.



다.<sup>42</sup> 영지주의자들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은 선택된 자들인 영지주의자들의 영을 일깨우는 ‘예수의 지혜’였다.<sup>43</sup>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인들에게」 제5장에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불가분의 관계며, 긴밀한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는 이를 통해 선택된 자에 대한 교리를 간접적으로 증거한다.<sup>44</sup> 그리고 이것을 성찬과 연결하여 교회 감독에게 잘못된 교리로 저항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오만함과 교만함이 분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함께 지적한다.

...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듯이 여러분이 감독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내가 축하하지 않겠습니까? ... 만약 어떤 사람이 성전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빵이 결핍될 것입니다. ... 여러분의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분열주의자가 된다는 사실을 통해 그들의 오만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저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는 감독에게 저항하는 것을 진심으로 피해야겠습니다.(*Eph.* 5:1-2)<sup>45</sup>

성찬은 ‘교회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성찬은 ‘성전 안에 있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빵’이 결여된다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성찬은 이를 통해 두 가지를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첫 번째는 교회 밖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교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두 번째로, 구원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에

<sup>42</sup> Soren Giverson & Birger A. Pearson, trans. “The Testimony of Truth,” in *The Nag Hammadi Library*, 1 :3, 234-239.

<sup>43</sup> Douglas M. Parrott, trans. “The Sophia of Jesus Christ,” in *The Nag Hammadi Library*, III:4, 138-142.

<sup>44</sup> 조윤호,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둘째 아담 그리고 창조회복』, 75.

<sup>45</sup> Ignatius, “To the Ephesians,” 5:1-2, 89.

참여하는 자의 것이라는 교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은 구원받을 자로 택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그나티우스는 성찬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에베소 인들에게」 제7장을 통해 가현설을 반박하면서 그리스도의 참된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을 가리켜 택한 자인 우리를 위한 대속의 값이었다는 것을 변증한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에게 속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 “거기에는 오직 한 분의 의사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sup>46</sup>

### III. 영지주의자들과의 교리적 갈등에 대한 성찬의 처방 효과

#### 1. 구원의 효력을 증거

영지주의자들의 신론은 유일신론이 아닌 다신론이다. 그리고 사람의 창조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라는 복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약에 등장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악의 신으로 묘사했던 사마리아인이었던 마술사 시몬의 교리는 영지적인 사변을 계속해서 낳게 된다.<sup>47</sup>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무에서 태초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 것에서부터 태초를 논한다. 따라서 불멸의 존재들과 관련된 ‘소피아(Sophia, 지혜)’는 세상의 기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기 영지주의자였던 메난드로스(Menandros)의 제자 사투르니누스(Saturninus)는 창조에 대해 두 가지 이론을 만들어낸다. 하나는 유일한

<sup>46</sup> Ignatius, “To the Ephesians,” 7:2, 90.

<sup>47</sup> Scopello, *Les Gnostiques*, 59.

‘알지 못하는 신’에 의한 ‘천사들’의 창조다. 또 다른 하나는 일곱 천사를 통한 세상의 창조와 미완에 따른 인간의 형체를 만든 일이다.

창조 기사를 보면 천사들에 의해 미완성된 인간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바르게 세워 생명을 누리게 했다는 것이다.<sup>48</sup> 메난드로스의 또 다른 제자인 바실리데스(Basilides)는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성’으로 부르고 있다.<sup>49</sup> 이런 영지주의 사상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참된 인간의 영역에 두지 않는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인성으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이룬 대속의 죽음을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반증한다.<sup>50</sup> 이들의 다양한 사상에 따르면 세례는 우리에게 계시된 지식의 요소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며, 성찬은 영적 은사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sup>51</sup>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교리가 교회 속에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에 대해 이그나티우스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라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 증거한다.

이그나티우스는 바울과 베드로의 직접적인 영향 가운데 놓였던 속사도 교부였다.<sup>52</sup>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구원교리를 반박한다.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은 ‘영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다는 교리를 밝힌다.<sup>53</sup>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이루신 보혈의 사건을 ‘자기들을 사신 주(τὸν ἀγοράσαντα αὐτοὺς

<sup>48</sup> Scopello, *Les Gnostiques*, 60.

<sup>49</sup> Scopello, *Les Gnostiques*, 62.

<sup>50</sup> Köstenberger, *A Theology of John's Gospel and Letters*, 375.

<sup>51</sup> Robinson, trans. "A Valentinian Exposition," in *The Nag Hammadi Library*, XI:2ab; ab, 251-252.

<sup>52</sup> Ignatius, "To the Magnesians," 13:1-2, 97; 조윤희, "갈등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이그나티우스의 신학과 사상연구," 227-230.

<sup>53</sup> Leonhard Goppelt, *Typus the Typ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최종태 역, 『모형론』(서울: 새순출판사, 1993), 250.

δεσπότην, Lord who bought them)’로 표현하고 있다. 베드로는 이런 진리를 부인하며 자신들의 영지적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가리켜 ‘거짓 선생들’ 또는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불렀다. 이그나티우스는 「트랄레스 인들에게」 제4장과 제6장, 그리고 제7장에서 영지주의자들을 가리켜 ‘다른 음식’, ‘맹독을 주는 자’, ‘성전 밖에 있는 사람’으로 부르고 있다.<sup>54</sup>

그는 「에베소 인들에게」 제7장 2절에서 구원을 논하면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신 그리스도를 치료하시는 ‘의사’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에베소 인들에게」 제20장 2절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성찬의 빵을 ‘불멸을 위한 약’으로 표현한다. 이런 성찬은 죽음을 막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지속적인 생명을 얻는 ‘해독제’가 되었다. 이그나티우스의 표현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의 말씀인 “멸망하게 할 이단”을 상기시키게 한다.<sup>55</sup> 이그나티우스는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제4장과 제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사신바 된’ 신자들로 하여금 영지주의 이단과의 구별점을 성찬에서 찾으려 한다. 그리고 ‘하나만의 성찬식’을 준수하도록 한다. 이런 자신 또한 순교 현장을 향하고 있으며 두 가지 측면에서 위안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 하나는 성만찬과 관련된 ‘그리스의 몸 안’이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기록했던 ‘복음서’와 ‘사도서’였다.<sup>56</sup>

그러므로 하나의 성찬식을 지키도록 유념하십시오. 마치 장로와 동료 종들이 집사들과 함께 한 명의 감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분의 한 잔의 피,

<sup>54</sup> Ignatius, “To the Trallians,” 4:1; 6:1-2; 7:2, 99-100.

<sup>55</sup> Ignatius, “To the Ephesians,” 20:2, 93.

<sup>56</sup> Pamphilus, *The Ecclesiastical History of Eusebius Pamphilus*, 3:36, 109-111; Battista Mondin, *Storia della Teologia*, 조규만 외 3 인역, 『신학사 1』(서울: 가톨릭출판사, 2012), 126.

그리고 하나의 제단이 있습니다. ...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는 저를 온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몸 안에서 위안을 얻듯이 ‘복음서’와 교회의 장로회에서 위안을 얻듯이 ‘사도서’에서 위안을 얻으며 제가 자비롭게 최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Phil.* 4:1-5:1)<sup>57</sup>

「에베소 인들에게」 제20장 2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그나티우스는 성찬과 관련하여 구원의 효력에 대해 두 가지의 교리를 증거한다. 첫 번째는 ‘영생불멸’의 교리다. 이그나티우스는 이것을 성찬의 ‘빵’을 통해 ‘불멸을 위한 약’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죽음을 막는 것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며 성찬의 ‘빵’을 통해 이것을 먹는 신자들에게 효력이 전가된다는 구원의 교리를 밝힌다. 두 번째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씻음을 받는 ‘죄 사함’의 교리다. 성찬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예식이다. 이그나티우스는 이것을 단순히 연합만으로 보지 않는다. “연합이 되어 지속적인 생명을 얻는 해독제”로 연결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의 ‘백보좌 심판대’는 종말에 있을 신자와 불신자의 심판대이다. 영·육간에 부활한 상태에서 그 행위대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 심판을 받게 된다. 여기서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그 값이 되어주신다. 그리고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의미를 담고 있다.<sup>58</sup> 성찬이 ‘해독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죄사함의 교리를 담고 있다. 이그나티우스는 성찬을 통해 구원의 효력을 증거하고 있다. 그는 「에베소 인들에

<sup>57</sup>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4:1-5:1, 108-109.

<sup>58</sup> 조윤호,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다 이루었다’가 의미하는 것,” 224-227.

계」 제13장에서 이런 성찬을 행하기 위해 더 자주 모이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 2. 부활의 참된 진리를 증거

이그나티우스가 「로마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5장 3절에 따르면 자신의 순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임을 상기시킨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의 갈등과 외면에서 일어나는 상황적 두려움의 갈등을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걸음으로 극복하려 한다. “불, 십자가, 야수와 싸우는 것, 뼈를 비틀고, 팔다리를 찢고, 온몸을 부수고, 잔인한 고문을 당하는 것들, 나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만 하십시오!”<sup>59</sup> 그는 죽는 것을 통해 두려움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곧 이어지는 「로마 인들에게」 제7장 3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순교를 가리켜 ‘영원한 애찬’으로 표현한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빵’인 그리스도의 몸이었으며, 그리스도의 피였다.<sup>60</sup>

이그나티우스는 성만찬을 가리켜 「에베소 인들에게」 제20장 2절에서 ‘불멸의 약’으로 칭하고 있다. “이 모임에서 여러분은 감독과 장로회에 깊게 주의를 기울이고 ‘불멸의 약’인 빵을 떼고, 죽음을 막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지속적인 생명을 얻는 해독제를 획득해야 합니다.”<sup>61</sup> 이그나티우스는 진정한 성찬의 모습에 자신을 담는다. 그리고 고난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의 갈등을 극복시켜 나간다. 이것은 어떤 감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다. 부활의 확신과 연결되는 그의 신학적 근거를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나그 함마디에 기록된

<sup>59</sup> Ignatius, “To the Romans,” 5:3, 105.

<sup>60</sup> Ignatius, “To the Romans,” 7:3, 105.

<sup>61</sup> Ignatius, “To the Ephesians,” 20:2, 93.

「진리의 증언」에 따르면 영지주의자들은 순교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며, 공허한 것, 무익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심지어 순교를 육신의 주인인 아르콘들과 어울려 노는 것으로 비하하고 있다.<sup>62</sup>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는 이그나티우스 앞에는 유대교와 영지주의자들이 유발시킨 교리적 갈등에 따른 싸움의 두 전선이 놓여져 있었다.<sup>63</sup> 특히 영지주의자들의 교리는 혼합을 이루며 교회를 더욱 갈등에 놓이게 만든다.<sup>64</sup>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의 피를 「서머나인들에게」 제6장 1절에서 강조한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못한다면 그들 또한 심판”이라며 가현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을 반박한다. 이런 증거는 제7장 1절 ‘성찬식’으로 그 내용이 이어진다. 여기서 이그나티우스는 두 가지의 가치관을 주장하게 된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가 이룬 대속이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부활의 참된 가치관이었다. 부활의 참된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는 ‘성찬식’을 영지주의자들은 회피하였다. 이그나티우스는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인정하지 않는 영지주의자들을 가리켜 “성찬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로 여기고 있었다.<sup>65</sup>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요소를 설명할 때, ‘공의의 영혼’을 중심에 두며 ‘지체’와 ‘육체’, ‘영’을 설명한다. 이들은 ‘영혼’의 윤회와 함께 ‘영’의 구원을 주장하였다. 나그 함마디에 기록된 「세상의 기원」에 따르면 육체는 영을 가두어 놓는 감옥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버려질

<sup>62</sup> Giversen & Pearson, trans. “The Testimony of Truth,” in *The Nag Hammadi Library*, IX:3, 234-235; Layton, trans. “The Hypostasis of the Archons The Reality of the Rulers,” in *The Nag Hammadi Library*, II:4, 113-116; Elaine Pagels and Karen L. King, *Reading Judas: the Gospel of Judas and the Shaping of Christianity* (New York: Viking Press, 2007), 71-72.

<sup>63</sup> Paul J. Donahue, “Jewish Christianity in the Letters of Ignatius of Antioch,” *Vigiliae Christianae* 32 (1978): 82.

<sup>64</sup> 조병하, “초대교회(1-2세기) 이단 형성(의 역사)과 정통 확립에 대한 연구: 영지주의를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72 (2014): 308.

<sup>65</sup> Ignatius, “To the Smyrnaeans,” 6:1; 7:1, 114.

것, 벗어나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sup>66</sup> 물질적인 세계를 거부했던 영지주의자들의 구원론은 물질세계에 갇혀 있는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다.<sup>67</sup> 그들은 물질을 비물질인 영혼과 대립하는 헬라적 이원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sup>68</sup> 여기에 대해 이그나티우스는 우리의 구원이 ‘영혼’과 ‘육체’ 모두에 있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 반증한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잘못된 구원관에 사로잡혀 갈등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인격적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과 부활의 사실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에게 동화되지 말도록 한다. 그리고 부활의 참된 진리를 성찬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통해 찾도록 강조하고 있다.

### 3. 참된 일치와 연합을 증거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인들에게」 제13장 1절에서 성찬을 위해 더욱 자주 모이기를 힘쓰도록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이단들로 인한 교리적 갈등을 이겨나가는 길이 성찬의 참된 의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참된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길이었다. 그리고 성찬은 교회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 이단의 갈등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그나티우스는 성찬을 위해 자주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가리켜 “사탄의 권력을 전복시키는” 길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두 번째는 만장일치된 믿음을 견인하는 교리적 터를 형성하는 길이었다. 이그나티우스는 성찬을 일치된 교리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모티브로 여기고 있었다. 「빌라델

<sup>66</sup> Bethge & Layton, trans. “On the Origin of the World-The Untitled Text,” in *The Nag Hammadi Library*, XIII:2, 289.

<sup>67</sup> Bengt Häggglund, *History of Theology*, 박희석 역, 『신학사』(서울: 성광문화사, 2014), 42; John M. Frame,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and Theology*,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서울: 생명의말씀사, 2018), 164.

<sup>68</sup> Berkhof, *Systematic Theology*, 306.



피아 인들에게」 제4장 1절에서 ‘하나만의 성찬식’을 준수하도록 교회를 향해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서머나 인들에게」 제7장과 제8장에서는 성찬이 분파주의 이단들로부터 교회가 일치를 이루는, 즉 ‘보편교회’로 이끌어가는 조건으로 제시된다.

그들은 성찬식이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고, 아버지께서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찬식과 기도의 예식을 멀리합니다. ... 해약의 근원인 분파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 감독이나 감독이 권위를 부여한 자가 집행하는 성찬식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보편교회(the Catholic Church)’가 있듯이 감독이 있는 곳에 회중이 모이게 해야 합니다. 감독이 없는 곳에는 세레나 애찬이 허락되지 않습니다.(*Smy* 7:1-8:2)<sup>69</sup>

「마그네시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7장 1절과 2절은 하나를 이룰 것을 강조한다. ‘하나의 기도’, ‘하나의 청원’, ‘하나의 마음’, ‘하나의 소망’, ‘하나의 성찬’, ‘하나의 제단’을 이루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측면에서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하면서 동시에 교리적, 환경적 갈등으로부터 야기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그나티우스가 하나의 감독론을 제시할 때도 하나를 이루는 감독의 주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성찬의 집행이었다.<sup>70</sup> 교회 내에 분파적 갈등을 일으켰던 영지주의 세력은 교회의 일치를 자신들 안에서 찾도록 한다. 나그 함마디 제11권에 기록된 「지식의 해석」에 따르면 세상은 불신앙의 장소며 동시에 죽음의 장소이다.<sup>71</sup>

<sup>69</sup> Ignatius, “To the Smyrnaeans,” 7:1-8:2, 114-115.

<sup>70</sup> 조병하, “초대교회 교회직제 발전에 대한 연구: 사도적 교부, 사도전승, 디다스칼리아를 중심으로(첫 3세기),” 『한국개혁신학』 31 (2011): 203-206.

<sup>71</sup> John D. Turner, trans. “The Interpretation of Knowledge,” in *The Nag Hammadi Library*, XI:1, 245-248.

따라서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영지주의자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비의 체’로 여기고 있으며, 이것을 자신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다. 그리스도가 빛을 발하여 교회를 볼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자신들을 통해 진정한 구원의 교회를 비취낼 수 있다는 논리다.<sup>72</sup>

성찬을 통한 이그나티우스의 구원과 부활의 교리에 이어 일치와 연합은 교회의 참된 가치의 회복과 함께 교회의 존속을 담아내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리스도의 수난과 육체와 영적 부활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성찬이라면, 여기에 덧붙여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교회의 일치된 교리적 연합이 성찬과 함께하고 있었다. 그는 가현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했던 「서머나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1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문을 이어가며 서신을 마무리하게 된다.

여러분의 감독(그는 하나님께 자랑거리입니다)과 훌륭한 장로회 그리고 나의 동료 집사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몸과 피로, 그분의 수난과 육체적 그리고 영적 부활,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과 여러분의 연합 안에서 인사합니다. ...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여러분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필로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전합니다.(Smy 12:2-13:1)<sup>73</sup>

<sup>72</sup> Turner, trans. “The Interpretation of Knowledge,” in *The Nag Hammadi Library*, XI:1, 247-248.

<sup>73</sup> Ignatius, “To the Smyrnaeans,” 12:1-13:1, 116.

## IV. 이그나티우스의 성찬신학이 주는 교훈

### 1. 참된 성육신을 통한 예언의 성취

영지주의는 영지에 따른 구원의 교리가 가지는 한계와 함께 구원받을 자는 영지적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선택적 교리의 한계 등으로 2세기와 3세기에 왕성했던 세력은 점점 쇠퇴한다. 특히 이그나티우스를 비롯한 교부들의 영지주의에 대한 교리적 반박은 영지주의의 민낯을 드러나게 만든다. 이그나티우스 이후 이레나이우스는 영지주의에 대한 논박을 목회적인 측면에서 조직적으로 그 내용을 다루며 교회로 하여금 교리적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sup>74</sup> 이후 영지주의자들은 교회 내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되며 교회 내에서 그 명칭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바빙크(Herman Bavinck)도 지적한 바 있듯이 영지주의는 아리우스주의(Arianism)에 대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 명칭만 사라졌을 뿐, 이 시대 앞에 다양한 방법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접근하며, 신자들의 영적 갈등과 시대 앞에 갈등의 요소를 던지고 있다.<sup>75</sup>

이제 이 영지주의적 요소가 고대 교부들, 특히 아타나시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신학적으로 거부되었지만 그 요소는 신학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사상의 근원은 이원론적으로, 정신과 물질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고, 접근할 수 없으며,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신의 존재를 반대하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신이 아니다”라며 신이 아닌, 하나님 없는 비신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근본적 대립을

<sup>74</sup> Bavinck, *Reformed Dogmatics* 1:125-126.

<sup>75</sup> Bavinck, *Reformed Dogmatics* 2:118-119, 294-295, 327, 419-420, 423-426.

조화시키기 위해 중간적 존재가 필요한데, 그 존재가 로고스였습니다.<sup>76</sup>  
 ... 유대주의적 사상과 영지주의적 사상은 중세에 전파되었고, 16세기에  
 도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sup>77</sup>

초대교회 주로 지식층을 중심으로 그 세력을 형성했던 영지주의자들은 엘리트 의식 가운데 놓여 있었다. 자신들은 ‘영적인 자들’로서 이성과 육체의 능력을 넘어선 특별한 재능의 소유자로 여기고 있었다.<sup>78</sup> 이런 영지주의 사상이 이 시대 앞에 또 다른 사색과 교리로 접근하고 있다. 1945년 나그 함마디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영지주의의 교리와 사상전집은 문화적 차원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또 다른 관심적 접근에 의해 「다빈치 코드」와 같이 성경을 왜곡하는 자료로 사용되며, 거짓된 교리로 성경적 교리를 반박하는데 활용된다.<sup>79</sup> 영지주의는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인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다. 그들은 절대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기보다 인간 스스로의 깨달음과 인식의 요소를 돌아보게 한다. 그리하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홀어놓고 있다.

성찬이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그나티우스가 성찬을 통해 성육신을 특별히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성육신이 거부되는 구원론은 가증스러운 교리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이그나티우스는 성찬교리를 펼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자들의 가현설을 반박하는 ‘성육신’의 실체였다.<sup>80</sup> 그는 「서머나 인들에게」 제7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성육신을

<sup>76</sup> Bavinck, *Reformed Dogmatics* 2:423-424.

<sup>77</sup> Bavinck, *Reformed Dogmatics* 3:208.

<sup>78</sup> Harold O. Brown, *Heresies*, 라은성 역, 『이단과 정통』(서울: 그리스, 2002), 93; 라은성, “파코미안 수도원운동에 끼친 영지주의,” 『성경과 신학』 38 (2005): 88-89.

<sup>79</sup> Scopello, *Les Gnostiques*, 17-19.

<sup>80</sup> Brant Pitre, *Jesus and the Jewish Roots of the Eucharist* (New York: Doubleday, 2011), 157-158.

거부하는 자는 성찬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에 이르는 “죽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에 따른 교리적 입장을 취한다.<sup>81</sup>

이그나티우스의 성찬신학에서 나타나는 성육신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 영지주의자들의 가현설을 반박하는 것에 멈추지 않는다. 그의 성찬신학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함께 다루고 있다.<sup>82</sup> 「서머나 인들에게」 제3장과 제7장 1절, 그리고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제8장 2절에서 십자가와 죽음, 부활을 다룬다. 그리고 성찬에서 이것이 우리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인들에게」 제1장 1절과 제18장 1절에서 우리의 대속을 이룬 십자가를 증거한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의 ‘피’와 ‘몸’의 실제적 성육신, 그리고 고난이 실제적이었음을 처음 신학적으로 주장하였다.<sup>83</sup>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음을 제18장 이하에서 밝히고 있다.

이그나티우스는 언약의 완성을 성찬과 연결시키고 있다.<sup>84</sup> 이를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죄사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그리고 「트라레스 인들에게」 제2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성찬의 삶은 “우리가 죽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라며 그리스도인의 길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는 성찬을 통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놓이게 한다. 그리고 갈등의 근본을 해결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sup>85</sup>

<sup>81</sup> Ignatius, “To the Smyrnaeans,” 7:1, 114.

<sup>82</sup> 조윤희,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둘째 아담 그리고 창조회복』, 75.

<sup>83</sup> 문병호, 『기독교론』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6), 661.

<sup>84</sup> Ignatius, “To the Ephesians,” 1:1; 18:1-20:2, 88, 92-93.

<sup>85</sup> Ignatius, “To the Trallians,” 2:1, 98-99.

## 2. 영생에 대한 바른 확신

교회사와 함께 교부학자인 H. R. 드롭너(H. R. Drobner, 1955-현재)는 이그나티우스의 신변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한다. 첫 번째로, 비잔틴의 ‘성인전(聖人傳)’에 의하면 이그나티우스는 마태복음 18장 2절에 등장하는 ‘천국에 관한 비유’와 관련된 ‘한 아이’였다고 추측한다. 그러나 연대기를 비교해서 볼 때 이것은 명확하지 않다. 이그나티우스가 태어났을 때가 A.D. 35년이었던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사역이었던 십자가 사건은 A.D. 30-33년으로 추측된다. 두 번째로, 히에로니무스(Hieronymus, 347-420)에 의하면 이그나티우스는 요한의 제자였다.<sup>86</sup>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던 이그나티우스에게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적 전개가 아니었다.<sup>87</sup>

십자가는 죄사함에 따른 예언의 성취였으며, 성찬은 이것을 증명하는 자리였다.<sup>88</sup> 요한복음 6장 54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이 곧 우리에게 영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말씀한다. 그러나 성찬에 대한 의미를 유대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죄가 된다.<sup>89</sup> 레위기 17장 10-12절과 19장 26절은 “무엇이든지 피째 먹는 것”을 금하고 있다. 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1)피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창 9:4. 레 17:11 참조). (2)피는 죄를 속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레 17:11 참조). 이런

<sup>86</sup> H. R. Drobner, *The Fathers of The Church: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하성수 역, 『교부학』(예관: 분도출판사, 2015), 120

<sup>87</sup> Pamphilus, *The Ecclesiastical History of Eusebius Pamphilus*, 109.

<sup>88</sup> 조윤호,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둘째 아담 그리고 창조회복』, 78-79.

<sup>89</sup> Pitre, *Jesus and the Jewish Roots of the Eucharist*, 18-21.

피를 마시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다. 유대적 관점을 함께 혼합하고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적 근거로 성찬을 거부한다. 그들은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거부하면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유대적 관점으로 교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성만찬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만찬에서 먹고, 마시도록 허락한 ‘살’과 ‘피’는 실질적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에 따른 영생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성만찬의 ‘살’과 ‘피’는 대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을 함께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성만찬의 ‘살’과 ‘피’는 일시적인 대속이 아니었다. 완전한 대속을 이룬 언약의 성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마 26:28 참조).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인들에게」 제18장 1절과 제19장 3절, 「트랄레스 인들에게」 제2장 2절을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죽음이 구원과 영생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sup>90</sup> 「폴리갑에게」 보낸 서신의 제2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불멸’과 ‘영생’에 이르게 된 자라며 로마의 압제로부터 오는 두려움의 갈등으로부터 해방되도록 격려하고 있다.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성취를 성찬을 통해 그 효능을 재확인한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바른 교리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교리적 갈등을 이겨내고 사도들로부터 전해오는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한다.<sup>91</sup>

특히 이그나티우스가 말하는 영생은 ‘영·육간의 부활상태’의 영생이었다. 그러나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삼고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영생을 인간의 육체를 ‘영’이 벗어난 상태로 설명하고 있다.

<sup>90</sup> Ignatius, “To the Ephesians,” 18:1; 19:3, 92-93; “To the Trallians,” 2:1, 99.

<sup>91</sup> Ignatius, “To Polycarp,” 2:3-3:2, 118-119.

그들의 구원은 ‘정화된 영’의 충만함으로 이뤄진다.<sup>92</sup> 따라서 충만한 인식에 이르지 못한 ‘영혼’은 다른 육체 속으로 윤회하며 또 다시 ‘영’의 충만함을 이뤄내기를 기다리게 된다. 이들은 ‘영생’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다. 첫 번째는 ‘영’의 충만함으로 영생은 이뤄진다고 믿고 있었다. 두 번째는 육체의 감옥을 다스리고 있는 아르콘이 발명한 시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영생으로 여기고 있었다.<sup>93</sup>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5장 1절에도 등장하고 있듯이 이그나티우스는 ‘복음서’와 ‘사도서’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sup>94</sup> 이런 이그나티우스의 성찬신학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59절에서 말하는 ‘영생’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생의 개념을 ‘영의 충만한 상태’에서 아르콘이 다스리는 육신과 시간으로부터의 탈출이었다. 그러나 사도들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 있었던 이그나티우스는 성찬을 통해 영생을 설명할 때, 요한복음 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육간의 부활과 영생을 피력하고 있다. 육체를 등한시하는 그릇된 영지주의의 교리는 육신의 또 다른 타락을 방관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그나티우스의 성찬신학은 육체와 영혼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는 교리를 세운다.<sup>95</sup> 이런 모습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교부들의 신학적 모습이었다. ‘황금의 입’으로 불렸던 요한 크리소스토무스(Johannes Chrisostomus, 349-407)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그는 제사장 직분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가 이룬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거론한다.<sup>96</sup> 이그나티우스는 성찬을 통해 요한복음이

<sup>92</sup> Bavinck, *Reformed Dogmatics* 4:72.

<sup>93</sup> Bethge & Layton, trans. “The (First) Apocalypse of James,” in *The Nag Hammadi Library*, V:3, 153-156; Scopello, *Les Gnostiques*, 105-109.

<sup>94</sup>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5:1, 109.

<sup>95</sup> 조윤희,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둘째 아담 그리고 창조회복』, 78-79.

<sup>96</sup> 조윤희, “요한 크리소스토ムの 사상에 나타나는 창조 회복에 따른 그리스도의 직분론 이해,” 『개혁논총』 49 (2019): 174-175.



증거하고 있는 6장 54절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라는 ‘영·육간의 회복’에 따른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영생의 진정한 가치관으로 영지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영’에 대한 거짓된 교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었다.

### 3.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도 수립

로마정부로부터 가해져 오는 위협은 영적, 육적 갈등을 유발시켰다. 순교를 앞두고 로마로 압송당하는 이그나티우스에게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과 갈등이었다.<sup>97</sup> 여기에 더하여 영지주의자의 그릇된 교리로 인한 교회의 분열은 이그나티우스로 하여금 뼈속까지 갈등하게 만든다. 영지에 따른 구원론을 펼쳐나갔던 영지주의자들에 따르면 순교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그나티우스에게 있어서 순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 것이었으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제자도의 길이었다.<sup>98</sup> 이그나티우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던 순교는 단순한 죽음의 길이 아니었다. 그의 순교는 그리스도와 일치와 연합을 이루며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교리적 바탕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로마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4장 1절에 따르면 자신은 야수들의 먹이가 되어 뼈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먹이가 되길 원했다. “나는 하나님의 밭이니 야수들의 이빨에 갈려져 그리스도를 위한 순수한 떡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sup>99</sup> 여기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야수의 먹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떡 덩어리’이다. ‘떡 덩어리’는 십자가로 이룬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sup>97</sup> 조윤호,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돌짜 아담 그리고 창조회복』, 77-78.

<sup>98</sup> 조윤호, “갈등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이그나티우스의 신학과 사상연구,” 246.

<sup>99</sup> Ignatius, “To the Romans,” 4:1, 104.

이그나티우스의 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순교신학이다. 순교는 그가 주장하고 있는 ‘참된 제자도’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순교는 성찬의 특징을 가진다.<sup>100</sup> 순교가 중심에 서서 한쪽에서는 ‘참된 제자도’를 설명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성찬’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순교와 ‘참된 제자도’ 그리고 ‘성찬’은 가현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와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다. 신자들이 하여금 바른 길에 들어서게 하는 구별점이었다.<sup>101</sup> 「에베소 인들에게」 제1장 2절에 따르면 순교는 ‘참된 제자’가 되는 적극적 길이 된다. 그리고 성찬은 ‘참된 제자도’를 알아가게 한다. 이그나티우스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길을 걷는 ‘참된 제자도’를 보게 한다. 그는 성찬을 통해 제자도의 신앙으로 갈등 가운데 놓여진 교회를 하나로 묶어간다.<sup>102</sup>

성찬은 신성과 인성으로 ‘한 인격’을 이루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고 있다.<sup>103</sup> ‘참된 제자도’는 인지적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만들어진다. 「에베소 인들에게」 제13장 1절과 「서머나 인들에게」 제8장 2절에 의하면 성찬은 신자로 하여금 신앙으로 교회 가운데 하나로 모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참된 제자도’가 어떤 신앙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말씀을 준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에 주목했던 이그나티우스는 성찬을 강조하면서 이 점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는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길을 걷는 것을 ‘참된 제자도’로 여기고 있었으며,

<sup>100</sup> Drobner, *The Fathers of The Church*, 122.

<sup>101</sup> Frank, *Lehrbuch der Geschichte der Alten Kirche*, 151.

<sup>102</sup> Cyril C. Richardson, “The Church in Ignatius of Antioch,” *The Journal of Religion* 17 (1937): 434.

<sup>103</sup> 조윤호, “갈등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이그나티우스의 신학과 사상연구,” 240.

이것을 성찬을 통해 피력하고 있었다.

## V. 나가면서

로마정부로부터 가해져 오는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것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그나티우스의 신앙과 신학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순교를 앞두고 있는 로마의 압송 과정에서 이그나티우스가 기록한 일곱 편외 서신은 그의 신앙과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교리의 토대를 읽어볼 수 있게 한다. 속사도 교부였던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에 대해 교부학자들과 교회사가들은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강조했던 교부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깊다. 신학적인 개념에서 다루기보다 신앙적 측면에서 그를 다룬다. 그러나 「에베소인들에게」에서부터 「폴리갑에게」 보낸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은 갈등 가운데 놓여 있는 교리에 대해 답을 주면서 신앙을 견인해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영지주의와 관련된 교리적 갈등과 거기에 대한 답이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기독교론과 구원론은 가현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여기에 대해 교리적 중심을 확고하게 세우지 못한 교회들은 갈등 가운데 놓이게 된다.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었던 이그나티우스는 일곱 편외 서신을 기록한다. 이 서신들은 마치 자신의 목소리를 담는 유언장과 같았으며,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펼쳐나가는 장르였다. 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교리를 신앙과 함께 접목을 이뤄 전개해나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따른 신성과 인성의 교리와 함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이 가현이 아니라 사실이란 것을 증거한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성찬론과 연결하여 부활과 구원에 따른 영생 교리를 펼쳐나간다.

초대교회 이후 속사도 교부들이 사역하던 시대에 일어났던 영지주의자들과의 교리적 갈등은 교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그나티우스가 성찬론을 교리적 논쟁에 들고나온 것은 매우 의도적인 신학적 발상이었다. 먼저 상황적인 면에서 그는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 또한 갈등의 연속이었다.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기록에 따르면 자신은 ‘열 마리의 표범들 사슬’에 매여가고 있었다.<sup>104</sup> 상황으로 볼 때 서신을 기록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서신들의 내용이 짧은 것은 자신의 압송에 따른 상황의 긴박함도 함께하고 있었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영지주의자들의 교리를 전체적으로 변증할 수 있는 것이 성찬론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이그나티우스는 성찬론의 교리적 전개를 통해 의도한 것이 있었다. 먼저, 성찬론은 당시 예비온주의자들과 함께 영지주의자들을 확연하게 구별해내는 교리였다. 성찬론의 ‘몸’과 ‘피’는 이들이 거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과 ‘참된 인성’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두 번째, 「트랄레스 인들에게」 제7장에 의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성찬론은 대속에 따른 ‘그리스도론’과 ‘구원론’에 대한 이단들과의 구별점이기도 했다.<sup>105</sup>

이그나티우스는 성찬론을 통해 갈등이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구별점을 갖도록 한다. 그는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교리로 갈등하고 있는 교회로 하여금 성찬론의 처방을 통해 사도적 가르침으로 일치점을 이루게 한다. 그리고 부활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따른 구원의 확신에 대해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이그나티우

<sup>104</sup> Ignatius, “To the Romans,” 5:1, 104.

<sup>105</sup> Ignatius, “To the Trallians,” 2:2, 99; 7:1, 100.

스는 성찬론을 펼치면서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과 ‘참된 인성’으로 가현설을 반박한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대속과 함께 구원에 따른 택한자의 교리를 증거하며, 영지주의자들의 교리의 모순을 반박하고 있다. 이런 이그나티우스의 성찬교리는 ‘참된 성육신’과 ‘예언의 성취’ 그리고 ‘영생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참된 제자관’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그나티우스가 제시하고 있는 성찬론은 우리로 하여금 신학과 신앙에 대해 세 가지 측면을 돌아보게 한다. (1)우리의 신학과 신학은 지식과 논리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으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을 향한 근본으로부터 벗어난 지식의 신학과 신앙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한다. 우리의 영적인 갈등은 하나님의 근본을 벗어난 지식 우선주의로부터 시작된다. (2)우리의 신학과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시대 앞에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되물어보고 있다. 성찬의 참된 의미를 통해 신앙의 바른길을 교리적으로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우리의 부활과 영생의 신학과 신앙은 언약의 확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갈등에 대해 이그나티우스는 성찬론에 관한 교리로 ‘진검’을 든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사실을 근거한 언약의 성취였으며, 언약의 완성에 대한 확신을 함께 가지게 한다. 이런 이그나티우스의 성찬신학은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를 이루는 일치와 연합을 제공하고 있다.

〈Abstract〉

The Study of Ignatius' Theology of the Eucharist  
Focusing on the Doctrinal Conflict with the  
Gnostics

YounHo Jo

(Systematic Theology / Senior Pastor, Gerizim Church)

The Second-century Gnostics plunged the church into serious conflict with the doctrine of Docetism and Gnosticism. In this connection, Ignatius wrote seven letters. His correspondence, from 「To the Ephesians」 to 「To Polycarp」 written by Ignatius, who was being taken to Rome ahead of his martyrdom, was like a will. In this respect, his letters were also scenes of unfolding his final ministry. In his letters, Ignatius confronts the doctrine of the Gnostic with the doctrine of the Eucharist. Ignatius had a special reason presenting the doctrine of the Eucharist. The first was the doctrine of the Eucharist that was able to disprove the doctrine of the Gnostics most clearly in the short time being taken to Rome. Second, the doctrine of the Eucharist was the most doctrinal explanation for the apostles' teachings. Third, it was the doctrine of the Eucharist that most certainly could disprove that the doctrine of the Gnostics was false.

Ignatius is said to be a spokesperson for the apostles, and his Eucharist theology makes three doctrinal presentations to the

doctrinally conflicted church. 1) Regarding Christology, he ask the church to stand on the doctrines of “divinity” and “humanity,” the “two natures” of Christ. 2) Regarding the Doctrine of Salvation, let the church clarify the doctrine of the redemption of the cross. 3) Regarding the Resurrection, make the church stand on the doctrine of unwavering. Ignatius leads the church to establish two pillars of doctrine and faith through the Eucharist. And he is leading the church to reach “true unity” and “union” so as not to fall into division due to doctrinal conflict. And the Eucharist theology of Ignatius illuminates the way for us to find the essence of faith and theology in the reality of Christ.

**Keywords:** Christ, Ignatius, Eucharist, Gnosticism, Docetism, Conflict

## 〈참고문헌〉

- 라은성. “파코미안 수도원운동에 끼친 영지주의.” 『성경과 신학』 38 (2005): 76-115.
- 문병호. 『기독론』.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6.
- 우병훈. “유신진화론의 아담론 비판: 데니스 알렉산더의 견해를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92 (2019): 151-186.
- \_\_\_\_\_. “참된 교회의 감춰져 있음—루터 교회론의 한 측면.” 『한국개혁신학』 55 (2017): 69-110.
- 조병하. “초대교회(1-2세기) 이단 형성(의 역사)과 정통 확립에 대한 연구: 영지주의를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72 (2014): 291-323.
- \_\_\_\_\_. “초대교회 교회직제 발전에 대한 연구: 사도적 교부, 사도전승, 디다스 칼리아를 중심으로(첫 3세기).” 『한국개혁신학』 31 (2011): 190-217.
- 조윤호.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둘째 아담 그리고 창조회복』. 서울: (사)기독교문서선교회, 2021.
- \_\_\_\_\_. “갈등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이그나티우스의 신학과 사상연구: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68 (2020): 218-268.
- \_\_\_\_\_. “요한 크리소스톰의 사상에 나타나는 창조 회복에 따른 그리스도의 직분론 이해.” 『개혁논총』 49 (2019): 153-195.
- \_\_\_\_\_. “아담의 세 가지 직분과 창조론과의 관계.” 『갱신과 부흥』 24 (2019): 217-250.
- \_\_\_\_\_.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다 이루었다’가 의미하는 것.” 『갱신과 부흥』 20 (2017): 198-235.
- 정일권.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넘어서: 기독교와 불교 대화신학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개혁신학』 37 (2013): 117-151.
- Barnard, L. W. “The Background of St. Ignatius of Antioch.” *Vigiliae Christianae* 17 (1963): 193-206.
- Bavinck, Herman. *Reformed Dogmatics*. 4 Vol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4.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8.
- \_\_\_\_\_.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s*. London: Banner of Truth, 1991.
- Bethge, Hans-Gebhard & Layton, Bentley. Trans. “On the Origin of the World-The UntitledText.” In *The Nag Hammadi Library*. Ed. James M. Robinson. California: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2009.
- \_\_\_\_\_. Trans. “The (First) Apocalypse of James.” In *The Nag Hammadi Library*. Ed. James M. Robinson. California: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2009.
- Brown, Harold O. *Heresies*. 라은성 역. 『이단과 정통』. 서울: 그리심, 2002.
- Dassmann, Ernst. *Kirchengeschichte I*. 하성수 역. 『교회사 I』. 왜관: 분도출판사, 2007.
- Donahue, Paul J. “Jewish Christianity in the Letters of Ignatius of Antioch.” *Vigiliae Christianae* 32 (1978): 81-93.
- Drobner, H. R. *The Fathers of The Church: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하성수 역. 『교부학』. 왜관: 분도출판사, 2015.
- Frame, John M.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and Theology*.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8.
- Frank, Karl Suso. *Lehrbuch der Geschichte der Alten Kirche*. 하성수 역. 『고대 교회사 개론』.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8.
- Giversen, Soren & Pearson, Birger A. Trans. “The Testimony of Truth.” In *The Nag Hammadi Library*. Ed. James M. Robinson. California: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2009.
- Goppelt, Leonhard. *Typos the Typ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최종태 역. 『모형론』. 서울: 세순출판사, 1993.
- Grant, Robert M. Trans. “The Gospel of Truth.” In *The Nag Hammadi Library*. Ed. James M. Robinson. California: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2009.
- Hägglund, Bengt. *History of Theology*. 박희석 역. 『신학사』. 서울: 성광문화사,

2014.

- Hamman, Adalbert. *How to Read the Church Fathers*. London: SCM Press LTD, 1993.
- Ignatius. "To the Ephesi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the Magnesi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the Tralli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the Rom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the Philadelphi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the Smyrnae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Polycarp."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Irenaeus. "The Refutation and Overthrow of the Knowledge Falsely So Called."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Isenberg, Wesley W. Trans. "The Gospel of Philip." In *The Nag Hammadi Library*. Ed. James M. Robinson. California: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2009.
- Kelly, J. N. D. *Early Christian Doctrines*.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68.
- Köstenberger, Andreas J. A. *Theology of John's Gospel and Letters*. 전광규 역. 『요한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 Küng, Hans. *Die Kirche*. 정지런 역. 『교회』. 서울: 한들출판사, 2007.
- Layton, Bentley. Trans. "The Hypostasis of the Archons The Reality of

- the Rulers.” In *The Nag Hammadi Library*. Ed. James M. Robinson. California: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2009.
- Lichtenberger, Hermann. *Frühjudentum und Kirche im Neuen Testament*. 박성호 역. 『초기 유대교와 신약의 교회』.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 Lubac, Henri de. *La mystique et l'anthropologie dans le christianisme*. 박진상 역. 『그리스도교 신비사상과 인간』. 화성시: 수원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6.
- Martyr, Justin. “The First Apology of Justin, the Martyr.”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Mondin, Battista. *Storia della Teologia*. 조규만 외 3 인역. 『신학사 1』.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2.
- Pagels, Elaine and L. King, Karen. *Reading Judas: the Gospel of Judas and the Shaping of Christianity*. New York: Viking Press, 2007.
- Pamphilus, Eusebius. *The Ecclesiastical History of Eusebius Pamphilus*. Trans. C. F. Cruse. Oregon: Watchmaker Publishing, 2011.
- Parrott, Douglas M. Trans. “The Sophia of Jesus Christ.” In *The Nag Hammadi Library*. Ed. James M. Robinson. California: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2009.
- Pelikan, Jaroslav. *The Emergence of the Catholic Tradition(100-60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71.
- Pitre, Brant. *Jesus and the Jewish Roots of the Eucharist*. New York: Doubleday, 2011.
- Placher, William C. *A History of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3.
- Richardson, Cyril C. “The Church in Ignatius of Antioch.” *The Journal of Religion* 17 (1937): 428-443.
- Robinson, James M. Trans. “A Valentinian Exposition.” In *The Nag Hammadi*

- Library*. Ed. Robinson, James M. California: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2009.
- Schoedel, William R. Trans. “The (First) Apocalypse of James.” In *The Nag Hammadi Library*. Ed. James M. Robinson. California: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2009.
- Scopello, Madeleine. *Les Gnostiques*. 이수민 편역. 『영지주의자들』. 왜관: 분도출판사, 2005.
- Turner, John D. Trans. “The Interpretation of Knowledge.” In *The Nag Hammadi Library*. Ed. James M. Robinson. California: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2009.
- Van Gendoen, J. & Velema, W. H. *Beknopte gereformeerde dogmatiek*. 신지철 역. 『개혁교회 교의학』.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 Vos Johannes G. & Williamson, G. I.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A Commentary*. New Jersey: P&R Publishing, 2002.